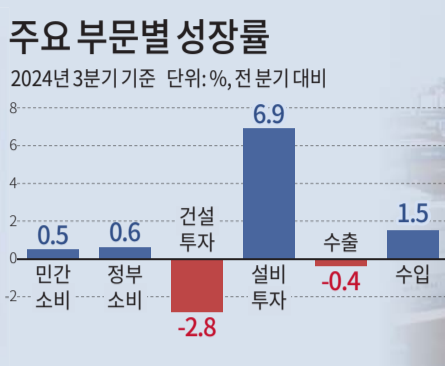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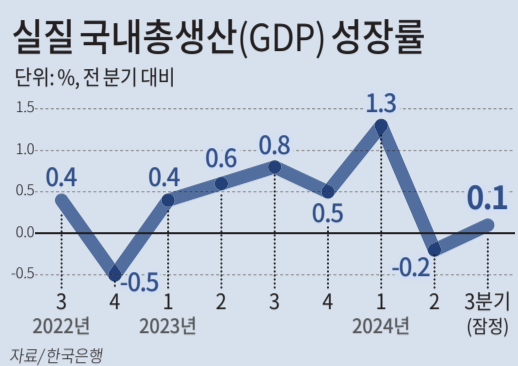


3분기 韓경제 0.1% ‘찐끔’ 성장… 한은 전망의 5분의 1 토막

내수 개선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3분기 실질 GDP 0.1% 성장 그쳐
한은 예상치보다 0.4%p 낮은 수준
연간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예상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부문 수출이 둔화되고, 비IT부문 수출이 부진하며 수출이 성장률을 1% 가까이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한편 한은이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를 밑돌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p 낮췄다. 이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국장은 “8월 전망에서는 4분기에 성장률이 전년 대비 1.2% 성장하면 2.4%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우선 3분기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낮아 2.4%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체크해 다음달 전망할 때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됐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축인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4%)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가 0.1% 성장에 그쳤다. 지난 2분기 성장률(-0.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한은이 지난 8월 예상한 수치(0.5%)보

다는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내수가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지난 8월 제조업 경기회복과 교역규모가 확대되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중국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내수는 민

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해 전분기보다 0.9%p 반등했다. 민간소비에는 승용차, 통신기기 및 의료, 운수 등에서 소비가 늘어 전분기보다 0.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늘어 6.9% 늘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며 2.8%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이 늘며 1.5% 증가했다.

신 국장은 “IT부문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여기에 비IT부문에서 파업과 전기차 수요가 줄며 자동차·화학제품·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져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전기

“타임빌라스’ 중심 쇼핑몰 사업에 7조 투자… 연 매출 6.6조 목표”

정준호 롯데백 대표 기자간담회
“국내 쇼핑몰 7년후 13조규모 예상
미래형 쇼핑몰 타임빌라스 키울것”

롯데백화점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쇼핑몰 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쇼핑몰 점포수를 13개로 늘리고, 매출도 6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해선 해외 쇼핑몰 사업에 신규 출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여전히 백화점이 우위에 있지만, 성장률이 정체된 반면, 쇼핑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쇼핑몰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대표는 특히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국내 쇼핑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7년간 13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며 “자신감 있게 쇼핑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국내 ‘롯데월드몰’과 해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

이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오픈한 월드몰은 롯데백화점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K패션, 글로벌 F&B(식품), 팝업 등을 유치해 인기를 끌며 매년 25% 고성장을 거듭했다. 또 연간 5500만명이 방문하는 등 MZ세대의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1000만 누적 방문객을 동원한 베트남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개점 약 4개월만에 초단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 연말에는 3000억원 달성도 점쳐진다.

이에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미래형 쇼핑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브랜드 전략의 핵심으로 ‘타임빌라스(TIMEVILLAS)’를 내놨다.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에 별장을 뜻하는 ‘빌라스’를 더해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공간’이라는 철학을 담은 ‘타임빌라스’를 새로운 쇼핑몰의 브랜드로 내재하고 지향점을 담은 B.I(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했다.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를 전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송도·수성·상암·전주에 4개

의 신규 쇼핑몰을 세우고 군산·수원·동부산·김해 등 기존 아울렛 7개점은 증축 및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한다.

해외에서도 신규 출점 및 위수탁 운영 등 다각도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롯데그룹의 자산과 연계해 쇼핑·엔터테인먼트·숙박·주거·업무·컬처 및 아트 콘텐츠를 결합해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즈를 연상케 하는 ‘멀티 콤플렉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건축가와 협업도 진행 중이다. 송도와 상암은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마이어’와 협업해 쇼핑몰과 리조트, 오피스텔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대구 수성은 영국의 쇼핑몰 설계사인 ‘LDA’와 협업, 쇼핑몰 안팎에서 즐길거리가 가득한 ‘인앤아웃도어’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단 들어와!

모든 식품정보

푸드에음에 다 있다!

원재료

연구장비

생산장비

전문가

교육

데이터

www.foodpolis.kr/fbi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 720-0500